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더 소울

The Soul. 소울(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다.

종교 NEWS

고성발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활동

“믿음 속에 화합을 일구는 소통의 신앙,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을 거듭나게 한다”



간성성당 ‘한겨울 밤의 음악회’ 열어

‘만원의 감동 운동본부’ 주최 ‘사계음악회’ 첫번째 미션 ... 최원석 주임신부 주창

천주교 간성성당(주임신부 최원석)은 지난 18일 ‘만원의 감동 주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사계음악회 첫번째 미션으로 ‘한겨울 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만원의 감동 주민운동본부’는 종교의 갖고 다름을 떠나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매달 1만원씩의 회비를 모아 계절별로 연간 4회의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한 시민단체다. 이 운동의 주인은 주민들이며, 의사결정도 주민들이 행하며, 주민들의 행복과 기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운동을 처음 주창한 천주교 간성성당 최원석 신부는 취지문에서 “음악은 하느님(하나님, 조물주)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귀중한 선물이므로, 모든 사

람들은 음악을 거저(무료로)누릴 권리가 있다”며 “사계음악회는 주민의(of the people) 주민에 의한(by the people) 주민을 위한(for the people) 음악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최 신부는 “만원의 감동 주민운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운동이므로 성당이나 교회, 사찰 등을 공연장으로 선정할 때 종교적 이유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회원이 무료로 제공되는 공연장에서 어떤 특정종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고 화목하게 음악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천주교 간성성당은 지난 18일 ‘만원의 감동 주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사계음악회 첫번째 미션으로 ‘한겨울 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종교/단신

기독교연합회 3.1절 기념행사

○...고성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최진묵, 고성감리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 고성감리교회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배에 따른 기도와 말씀, 독립선언문 낭독, 나라와 민족 및 고성군을 위한 기도, 만세3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거진중앙교회 경로대학 운영

○...거진중앙교회(담임목사 김혁)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대학을 운영한다.

거진중앙교회 경로대학은 지역 명사초청 강의, 한의원 의원 초청 건강강의, 보건소 식생활습관 교육, 경찰서 교통질서 계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중식을 무료 제공한다.

거진중앙교회는 올해로 14번째 지역 어르신 경로대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자비나눔 행사 통해 주민간 유대 강화”

건봉사 포교당 매주 토요일 무료급식 행사 ... 교통편 제공되면 군 전체로 확대 계획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건봉사 포교당(주지 현담 스님)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소외계층에게 자비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개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자비나눔 행사는 평소 생활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건봉사 주지 도후 큰스님의 제안으로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민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자비나눔 행사를 주관하는 건봉사 포교당 현담스님은 “종교의 차이를 떠나 지역의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며 “현재는 교통편의 제공이 어려워 간성읍내 주민 8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편이 제공된다면 군 전체가 참여하는 대축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자비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위해 매주 신도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건봉사 포교당이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자비나눔 무료급식 행사 모습.

이들간 음식 준비를 하고 있다. 행사비용은 군비 등의 지원없이 전액 건봉사 포교당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담스님은 자비나눔 행사를 통해 건봉사가 부처의 사상인 자비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정신적 지주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했다.

현담 스님은 “무료급식 행사를 토대로 앞으로 건봉사 포교당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며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